

NEWS 방송계 동향

방송기술교육원

방송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원장 김일양)은 2015년도 지상파 방송기술인 재교육을 오는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시작을 앞두고 교육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새롭게 오픈한다. 올해 첫 교육인 4월 과정은 3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du.kobet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연락처 : 서울사무실 02-3219-5640~1 / 수원교육장 031-219-8261~2
- 홈페이지 : <http://edu.kobeta.com>
- 이메일 : bea@kobeta.com
- 담당자 : 민서진 연구원

CBS

CBS 본사, NPS 구축 및 HD 전환 작업 막바지



CBS TV의 NPS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HD 전환은 송출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몇몇 제작 스튜디오 공사가 미뤄졌으나 이번 NPS 구축 일정과 함께 마무리한다. 이에 발맞춰 선교TV 본부 직원들도 BIS, CMS, NLE 교육을 받았으며, 빈틈없는 전환을 위해 새 스튜디오와 부조정실에서 녹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중순쯤에 HD 제작 및 NPS 구축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tbs

tbs 137시간 연속 '2015 설날교통특집방송' 진행

tbs 교통방송(FM95.1MHz)에서는 설 연휴 전날인 2월 17일 정오부터 2월 23일 새벽 5시까지 137시간 연속으로 '2015 설날교통특집방송'을 진행했다. tbs eFM(FM 101.3MHz)은 2월 2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K-Popular>와 <The Steve Hartherly Show>의 현장 생방송을 진행해 외국인들에게 K팝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와 풍습에 대해 소개하고, 설 연휴기간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을 전했다.

EBS

교육중심 문화체험학습, EBS 역사원정대 정식 오픈

EBS 미디어가 준비한 "교육중심 문화체험학습 EBS 역사원정대"가 정식 오픈한다. EBS 역사원정대는 EBS 영상 콘텐츠를 사전에 학습하고 그와 연계된 체험 장소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교육중심의 체험학습'을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사 시대순으로 역사 흐름을 잡아주는 '필수 한국사 탐방 프로그램'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 및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체험 인문학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저학년을 위한 '새싹원정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BS

KBS 42기 신입사원 교육 수료



64명의 42기 신입사원들이 모였다. 한 달 동안 KBS의 유전자를 탑재하기 위해 '전파로드 KBS 탐험대'를 통한 특훈을 받았다. 그 중, 7개 조가 2박 3일 동안 오로지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전국 송중계소를 방문해 방송 전파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체험을 실행했다. 직접 수신 가정 10가구 방문, 시청자와 강술래 등 1박 2일을 능가하는 미션을 받아 수행했다. 땀땀한 일정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다고 한다.

MBC

MBC예능 프로그램 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MBC예능연구소'



(www.facebook.com/MBCentertain)가 개설 2개월여 만에 3만여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는 등 열띤 반응을 얻고 있다. <일밤-애니멀즈> <일밤-진짜사나이> <나 혼자 산다> 등의 이슈 프로그램의 재미난 뒷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MBC 예능연구소'는 국내 시청자들은 물론, 나아가 한류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MBC 프로그램의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특집 다큐 'UHD 시대 현실을 보다' 방영



KT스카이라이프는 UHD 방송시장과 최신 기술을 집중 조명한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UHD 시대 현실을 보다'를 방영하였다. 1부 '시각혁명 UHD 영상

의 한계를 넘다'에서는 실감 미디어로 진화하는 차세대 UHD 방송의 매력을 다루며, 2부 'UHD 미래 시장을 선점하라'에서는 BBC와 NHK 등 우수 방송사의 UHD 콘텐츠 제작 능력과 최신 방송기술, 시장 선도 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은 올 상반기 두 번째 UHD 전문채널 개국을 앞두고, UHD 방송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BBS

BBS '다르마 콘서트' 개최

BB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지역사찰 홍보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토크 '다르마 콘서트'를 마련하였다. 불교방송의 올해 첫 다르마 콘서트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불교방송은 첫 번째 부산 '범어사 다르마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대구, 울산, 청주, 춘천 등 지역사회를 돌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N

YTN, 서울 시내버스 문자뉴스 서비스 시행

YTN은 서울버스TV방송과 함께 서울 시내버스 안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YTN의 문자뉴스를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시내버스 내부 모니터 운영사업자인 서울버스TV방송은 YTN의 자막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 하루 8시간 이상 승객들에게 제공한다. 또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 수를 현재 1,500대에서 3월 말까지 3,000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OBS

OBS-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MOU 체결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상호협력

OBS(대표이사 윤승진)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이충환)가 지난달 OBS 본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OBS와 미디어



센터가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경인지역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TV 맞춤형 앱 출시



아리랑국제방송은 최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해 아리랑TV의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방송콘텐츠를 쉽게 저장하여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앱(App)을 개편해 출시했다.

이 앱은 뉴스를 비롯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사용자는 아리랑TV 앱을 통해 원하는 뉴스 기사나 동영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 프로그램은 모두 Full VOD와 Clip 단위로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고객센터와 SNS로 연결되는 공간을 확보하여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었다.

SBS

SBS 설특집 드라마 HD,UHD 동시 제작, 송출

SBS의 설 특집 2부작 드라마 '내일을 향해 뛰어라'가 HD, UHD 동시 송출되었다. SBS가 드라마로서는 국내 최초 동시 송출에 성공함으



로써, UHD 콘텐츠 저변확대 및 성공적인 정규방송을 위한 기술력을 높였다. UHD TV 수상기와 디지털 TV 안테나를 보유한 수도권 가구는 채널 53의 1번으로 UHD 실험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